

## 2017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창립총회 의사록

일시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19:00~20:30

녹취·기록 김기민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임시간사)

--

- 국민의례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김기민 간사가 국민의례를 진행한다.
- 개회선언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홍수만 의장이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내빈 소개 및 축사
  - 김기민 간사가 지역 내 주요 인사들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심을 안내하고 참석 내빈을 소개하다.
    - 성북구청 윤진호 정책특보 (김영배 성북구청장 대리)
    - 성북구청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
    - 성북구청 은현기 마을기획팀장 (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 대리)
    -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박학룡 이사장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김유리 사무국장 (양현준 센터장 대리)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혜연 센터장
  - 김기민 간사가 참석 내빈에게 축사를 부탁하다.
    - 성북구청 윤진호 정책특보 축사 :  
“성북구가 민선 5기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 조례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이 벌써 7년차에 접어들었다. 혁신교육, 문화, 복지, 찾동, 지역복지협의체, 책읽는 성북, 마을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서울형 주거정비사업, 캠퍼스타운, 희망지 사업까지 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부분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 많이 계시다.

협치가 단순 주민참여를 넘어 이제 공동으로 실행해나가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협치성북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협치성북시민협의회도 준비 활동을 오래 하신 다음에 창립총회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협치의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서 오랫동안 수고해주셨다. 관의 흐름도 있지만 민의 자율적 흐름들이 형성되고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들이 협치가 활성화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창립총회 축하드린다.”

■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박학룡 이사장 축사 :

“도시재생, 마을 분과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매일같이 앞에 떨어진 일 치우기에 허덕이고 있어 함께 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지역 협치 구조를 만들어보자 1년 가까이 다 되어 간다. 나름대로 협치 쪽에는 경험이 있는 것 같다. 10여년 가까이 성북구청, 서울시청 여기저기 부딪히고 싸우면서 어떤 단체장과 만나면 쉽게 풀리고 안 풀리고. 역량 있고 힘 세니까 함께 옥 하고 소리 한 번 지르면 되고, 누가 하면 아무리 두드리고 애를 써도 안되고. 협치가 개인기로 풀리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누가 나서든, 아무리 힘 없고 경험 없어도 시스템으로 풀리고 제도화되어서 누가 나서도 잘 풀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명망 있거나 역량 있는 사람, 구의원 시의원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제도화된 협치로 가기 위해서 시민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출범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같이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도시환경 분과도 비워놓았던데 같이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출범 축하드린다.”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혜연 센터장 축사 :

“성북구가 도봉구의 엄마구다. 도봉이 성북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고 이후 강북, 노원까지 분리되면서 지금의 동북4구가 되었다. 오늘 이렇게 시민협의회 창립총회 한다고 들었고, 준비위원회 홍수만 의장과 함께 사시는 분과 인연이 있어 지방 일정으로 전남 구례에 다녀왔다가

서울시청에 내리자마자 바로 달려왔다. 도봉구도 협치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성북이 저희보다 민간 경험도 많고 먼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북의 사례 참고하고 잘 배우겠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린다.”

-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 김기민 간사가 준비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다.

“나눠드린 유입물 첫 페이지에 준비위원회 활동 연혁이 기록되어 있다. 깨알같이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 모두를 PPT에 담으면 화면 보시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자료 화면에는 내용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바란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작년 8월 16일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던 협치서울 성북 민관 설명회이다. 행정의 관계 부서는 물론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참석하신 자리였고, 협치 관련 내용들이 지역사회 안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치가 사업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았다.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협치란 무엇이고 어떤 정책과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충분히 나누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 과정에 참여할지 말 것인지를 이야기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집담회였다. 민간 집담회가 작년 8월 31일에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이런 활동을 계속 확대, 확산시키고 더 많이 알리는 활동을 하고자 기획단을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에 지역 안에 다양한 영역별로 만남을 갖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단 면담, 가칭 마을계획단 연합 준비모임 참석자들과의 면담,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단과의 면담이 있었다. 그 밖에 마을만들기 분야 참여자 간담회, 성북구 도시재생분야 활동가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분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두 번째 민간 집담회가 작년 10월 4일에 열렸고, 그 간의 정책 공유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작년 12월 모임에서 민간 차원의 협치 정책 현황 공유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민관 협치 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민간 나름의 활동을 위해 가칭 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 때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사이사이 성북구와의 민관 협력회의도 있었고, 또 준비위원회 차원에서의 실무회의도 수

차례 열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 5월 24일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다. 더 자세하고 많은 활동 내용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보고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자료동 협치성북 카테고리에 준비위원회가 회의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올려놓았다. 처음 게시판에 올려두었을 때는 얼마나 될까 생각했는데 지나서 확인해보니 게시물 건당 조회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심지어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전화로 문의주신 분들도 계셨다. 준비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같은 공유 활동을 하길 참 잘했다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다. 준비위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간의 논의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홈페이지에 공유된 내용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다.”

- 안건#1. 운영규약 제정안 보고 및 승인
  - 김기민 준비위원회 간사가 준비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고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안건 심의를 위한 순서를 진행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을 보고하다. (14:36)
    - 창립발기인 대부분이 규약 논의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 대략의 내용은 알고 계시므로 주요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른 단체, 기관들의 규약들을 참고해서 만들었고, 일반적인 예와 다르거나 협의회 고유의 특색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 전문 낭독 / 소개
    - 제1장 총칙
      - 제4조(사업)
      -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약 내용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거나 이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중간 과정에서 의견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장 회원
      - 제8조(회원의 징계)
      - “굳이 이런 회원 징계 관련 내용을 정해둔 것은, 협의회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계신 주민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개인의 돌출행동이나 특정 분야 사업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징계 절차를 세세하게 마련하게 되었다.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다.”

■ 제3장 총회

- “다른 기관, 단체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읽어보신 뒤 이의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제4장 운영위원회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④항 :  
“평당원으로서의 정당 활동, 평신도로서의 종교 활동 등 일상적인 정치·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종교지도자 분들과 같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 종교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의 경우 협의회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는 조항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 제17조(운영위원의 자격 및 선임) ③항 :  
“추첨제 민주주의 제도로써 추첨을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분과위원장, 분과 추천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추첨을 할 예정이다.”
- 제20조(단체의 대표) ④항 :  
“현재까지는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분과가 조직될텐데, 특정 분과에 사람이 많아서 분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협치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일종의 대의원 제도처럼 다양한 분과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부의장 2인의 경우 한 분이 여성인 경우 다른 한 분은 남성으로 하는 등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 이외에는 타 단체, 기관의 규약과 비슷하다. 운영위원회 관련하여 이의 있거나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시다면 말씀해달라.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제5장 분야별 분과위원회 > 제23조(분야별 분과위원회)

- 다양한 주민모임 찾아가서 협치성북시민협의회 활동에 참여해주시기를 권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 모임을 무작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민관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을 방문하였고,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분과가 조직되었다.”
- “문제 없거나 이의 없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다.”

- 제6조 회비와 재정
  -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이중 구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수입 지출 관련 규칙은 자체적으로 진행키로 하였다.”
  - “특별하게 문제 있거나 이의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 부칙
  - 제2조 : “창립 첫해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특별히 문제 없다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 홍수만 준비위원회 의장이 참석한 창립발기인들에게 운영규약 제정안 전체에 대한 질문, 이의를 확인하다.
  - “이상으로 운영규약에 대해 간략하게 주요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 여기 계신 회원님들께서 이 규약에 문제가 없거나 이의가 없다면 이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제안 :
    -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운영규약 모두 부분에 제정 일자를 기록해야 할 것 같다.”
    - 운영규약 초입 부분에 제정 일자를 기록하다.
  - 주민자치분과 최도용 회원 질의 :
    - “회비와 재정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회비에 대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분과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위원들의 회비로 재정이 100% 총당되는 거라면 민관 협치. 민에서 회비로 재정을 100% 총당하기 보다는 관도 100%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홍수만 준비위 의장 답변 :  
 “준비위원회에서는 정한 바로는, 운영위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 회비는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 준비위에서 모은 회비는 오늘 총회에서 대부분 쓰인 상태다. 외부 지원금이나 전입금이 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신임 의장님 선출되면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텐데, 그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될 경우 지원금에 대한 정산과 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 홍수만 준비위원회 의장이 운영규약 원안 그대로 승인할지 의사를 확인하다.  
 “추가적인 질문, 이의 없다면 운영규약 원안을 박수로 승인받는 것으로

하겠다.”

- 참석한 창립발기인 전원이 박수로 운영규약을 의결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운영규약 제정안의 원안 통과를 선언하다.

- 창립발기인 및 분과 소개

- 회원 명단 (\* 회원 가입신청서 제출하는 등 가입·활동 의사를 밝힌 단체/개인)

단체 (7/8)	대표자	담당자	참석 여부
성북구건지우연합회		박정근 부회장	참석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양현준 센터장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담당자 대리참석
성북동천	김철우	김기민 총무	담당자 대리참석
성북마을살이연구회	홍수만	(右同)	참석
성북시니어인권모임		박현숙	불참
손만세	이선영	(右同)	참석
장수마을주민협의회	배정학	(右同)	참석
정릉2동 마을계획단	김희자	(右同)	참석
<b>분과</b>	<b>분과원</b>	<b>직책</b>	<b>참석 여부</b>
교육분과 (4/7)	류지숙	분과위원장	불참
	오창민		참석
	이선영		참석
	이현주		참석
	박준식	간사	
	전영지	분과 추천 운영위원	참석
	조연향		
건강분과 (4/6)	김준영		참석
	박정근	분과위원장	참석

	이용성		불참
	차정화	분과 추천 운영위원	참석
	최해숙	간사	참석
	황성호		
복지분과 (3/5)	박현숙		불참
	배정학	분과위원장	참석
	유제훈		불참
	최윤희		참석
	홍수만	간사 겸 분과 추천 운영위원	참석
주민자치분과 (6/10)	김종환		불참
	김태석		불참
	김희자	운영위원회 의장, 분과위원장	참석
	이명옥		
	이윤입	추첨 운영위원	참석
	이종안	운영위원회 부의장, 분과 추천 운영위원	참석
	전미희	운영위원	참석
	최도웅		참석
	하은주		
	한정혜	간사	참석

- 창립발기인 명단 (\* 회원 중 총회 당일 현장 참석자를 창립발기인으로 함)
  - 단체(7) : 성북건지우연합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동천,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손만세, 장수마을주민협의회, 정릉2동 마을계획단 (※ 단체의 대표자는 아래 개인 명단에서 제외함)



- 개인(11): 오창민, 이현주, 전영지, 김준영, 차정화, 최해숙, 최윤희, 이윤임, 이종안, 최도용, 한정혜
    - 홍수만 준비위원회 의장이 협치성북시민협의회 구성 분과를 소개하다.
      - “교육분과, 건강분과, 복지분과, 주민자치분과 4개 분과가 구성된 상태이다. 5명 이상이 모일 경우 분과 구성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도시재생, 문화, 기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분과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조직할 수 있다.”
- 안건#2. 운영위원회 인준
  - 당연직 및 분과 추천 운영위원 인준
    - 홍수만 준비위원회 의장이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 추천 운영위원을 호명하고 소개하다.
      - “주민자치분과 당연직 운영위원인 김희자 분과위원장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과 추천 운영위원으로 내정된 이종안 님 함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분과 당연직 운영위원인 류지숙 분과위원장님은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분과 추천 운영위원으로 내정된 전영지 님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 류지숙 님은 진행중인 사업이 있어 끝내고 오고 계시는 중임을 교육분과 전영지 님께서 공유함)
      - “건강분과 당연직 운영위원이신 박정근 분과위원장님, 분과 추천 운영위원으로 내정된 차정화 님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분과 당연직 운영위원이신 배정학 분과위원장님, 분과 추천 운영위원은 제가 내정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참석한 창립발기인들에게 당연직 운영위원인 각 분과위원장과 각 분과에서 추천된 운영위원들의 인준을 박수로 승인할 것을 제안하다.
    - 참석한 창립발기인 전원이 박수로 당연직 및 분과 추천 운영위원을 인준하다.

- **추첨직 운영위원 선출 및 인준**
  - 홍수만 준비위원회 의장이 추첨직 운영위원 중 1인을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다.
    - “현재 구성된 분과가 4개이기 때문에 일단 10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하기로 정했습니다. 분과위원장과 분과 추천 운영위원 등 각 분과당 2명씩 운영위원이 있고 남은 2명의 운영위원 가운데 1명을 앞으로 협의회的重要한 사업적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될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위원을 맡는 것을 제안한다. 부득이한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양현준 센터장을 대신해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박수로 운영위원 선임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참석한 창립발기인 전원이 박수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양현준 센터장을 운영위원으로 인준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서울협치추진단 김영남 협치지원관을 현장 추첨인으로 지명하다.
 

“추첨 대상자가 많지 않아 경쟁률이 낮습니다. 거부하셔도 누군가는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추첨해야 합니다. 공정한 추첨을 위해 서울시에서 오신 김영남 협치지원관님께 추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영남 협치지원관이 추첨함에서 회원 이름이 적힌 용지를 꺼내다 김기민 준비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다.
  - 김기민 준비위 간사가 용지에 적힌 주민자치분과 이윤임 회원을 호명하고, 추첨직 운영위원으로 추첨되었음을 추첨직 운영위원으로 추첨되었음을 알리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추첨된 이윤임 회원에게 추첨직 운영위원직 수락 의사를 확인하다.
  - 이윤임 회원이 수락 의사를 밝힘으로써 추첨직 운영위원이 확정되다.
  - “내년에는 추첨직 운영위원을 더 많이 선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미 있네요.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홍수만 준비위 의장)
- **운영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을 임시 서기로 지명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설명하고 후보 추천을 요청하다.
  - “의장과 부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 가운데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의장 후보로 추천해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김희자 주민자치분과위원장님 추천합니다.” (박정근 운영위원)
  - “박정근 건강분과위원장님 추천합니다.” (최도용)
  - “홍수만 복지분과 간사를 추천합니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의장 후보 2인에 대한 거수 투표를 진행하다.

후보	소속	득표수 (명)
김희자	주민자치분과위원장 겸 당연직 운영위원	7 [선출]
박정근	건강분과위원장 겸 당연직 운영위원	1
홍수만	복지분과 간사 겸 분과 추천 운영위원	0
기권 또는 불참		2
<b>총원</b>		<b>10</b>

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분과 김희자 분과위원장 겸 운영위원을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부의장1 후보 추천을 요청하다.
  - 박정근 운영위원이 홍수만 운영위원을 추천하다.
  - 더이상의 후보 추천이 없어 홍수만 복지분과 간사 겸 분과 추천 운영위원이 단독 입후보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부의장1 단독 후보 찬반 거수투표를 진행하다.

찬성	8
반대	0
기권 및 불참	2
<b>총원</b>	<b>10</b>

운영위원회가 복지분과 홍수만 간사 겸 운영위원을 운영위원회 부의장1로 선출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부의장2 후보 추천을 요청하다.
  - 박정근 운영위원이 차정화 운영위원을 추천하다.
  - 한정혜 님이 이종안 운영위원을 추천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부의장2 후보 2인에 대한 거수투표를 진행하다.

후보	소속	득표수 (명)
이종안	주민자치분과 추천 운영위원	5
차정화	건강분과 추천 운영위원	2
기권 및 불참		3
<b>총원</b>		<b>10</b>

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분과 이종안 운영위원을 운영위원회 부의장2로 선출하다.

- 홍수만 준비위 의장이 의장단 선출 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하다.
  -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김희자 주민자치분과위원장님, 부의장1로 저 홍수만 복지분과 간사 겸 추천 운영위원, 부의장2로 이종안 주민자치분과 추천 운영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1년입니다. 선출된 의장단과 운영위원회가 1년 동안 좋은 활동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 진행 역할을 김희자 신임 의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 안건#3. 감사 선출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 김희자 운영위원회 의장이 선출 수락 인사를 하다.
 

“안녕하세요. 얼굴에 연륜이 묻어나는, 새로 선출된 의장 김희자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어제 이런 저런 이야기 하길래 난 하지 않겠다고, 할 일이 많아 어렵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오늘 이렇게 선출해주셨으니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3호 안건 감사 선출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하다.
 

“규약에 보면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감사 활동을 해주실 만한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선출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감사 선출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 참석한 창립발기인 전원이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건에 대해 찬성하고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안건#4. 2017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협치성북시민협의회 2017년도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다.  
 “시간 관계상 사업계획(안) 내용 전체를 읽지는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협치성북시민협의회 기본 운영 방안 및 단계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또는 의견 있는지 확인하다.
    - “없습니다.” (참석자 전원)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협치 정책 발전을 위한 워크숍”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또는 의견 있는지 확인하다.
    - “없습니다.” (참석자 전원)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협치 주민 리더 교육”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또는 의견 있는지 확인하다.
    -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 김기민 준비위 간사가 질의에 답변하다.  
 “현재 협치 정책이 제도화되기 전부터 부분적으로 민관 협력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서울시와 성북구 차원에서 추진되는 협치 사업들을 꾸준히 추적 관리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개선할 문제는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협치정책모니터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치성북시민협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홍수만 운영위 부의장이 추가로 답변하다.  
“주민참여예산 등을 비롯해 기존에도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성과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입장에서 보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성적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교육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협치주민리더교육”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의견을 확인하다.
  - “없습니다.” (참석자 전원)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협치정책연구회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및 의견을 확인하다.
- “우리가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협치의 한 축인 주민 입장에서 연구해서 현실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협치 관련된 조례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나요?”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 “성북구의 경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민관 합동 TFT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민 준비위 간사)
    - “조례 관련해서 연구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건가요?”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 “홍수만 부의장님이 현재 민관 합동TFT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민 준비위 간사)
    - “지금 현재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민관 TFT를 구성했고요, 협치성북시민협의회 몫으로 저와 김희자 의장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협치 조례 만드는 TFT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 제정 TFT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행정, 의회, 민간이 같이 성북구에 맞는 협치 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초동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서울시가 가장 먼저 협치 조례를 만들었고, 4개 자치구가 조례를 만든 상태입니다. 앞선 사례들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민간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성북구 주민들과 실제로 협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수만 운영위 부의장)

- “조례는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순 없고, 초안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만들어놓았고 그것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홍수만 부의장)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협치정책연구회 운영”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의견을 확인하다.
  - “없습니다.” (참석자 전원)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및 의견을 확인하다.
  - “시민자산화 전략은 그 동안 행정의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중심이 되어 독립적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비록 쉽지 않지만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민간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희자 의장)
  - 김희자 운영위 의장이 총회 자료집 2017년도 사업계획(안)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부분 낭독을 요청하다.
  - 이종안 부의장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부분을 낭독하다.
  - 김희자 의장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다.  
“원안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 “네. 없습니다.” (참석자 전원)
- 참석자 박수로 2017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되다.
- 김희자 의장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원안 통과를 선언하다.

- 안건#5.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신청 및 2017년도 예산(안) 수립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 “이번 창립총회에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계획(안)을 보고하고 승인받는 것이 순서이지만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추진 및 집행 권한과 2017년도 예산 편성권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동의합니다.” (박정근 운영위원)
  - “큰 박수로 5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5호 안건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신청 및 2017년도 예산(안) 수립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을 의결하다.
  - 김희자 의장이 5호 안건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신청 및 2017년도 예산(안) 수립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의결을 선언하다.
  
- 기타사항 및 현장 제안
  - “마지막으로 기타사항 및 현장 제안 안건 논의입니다. 준비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외에 현장에서 논의할 수 있거나 논의되기를 희망하는 안건,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의장)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해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이 구성이 되는건지.”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 “네 그렇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오프라인/온라인 상에서 시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오늘 의결한 2017년도 사업계획이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이 의도하는 바이고 이 내용들을 사업신청서에 반영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1차로 6월에 할



계획이고요, 수정 보완 작업과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기민 준비위 간사)

- “답변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희자 의장)
  - “네 없습니다.” (참석자 전원)
- “네 그럼 기타사항 및 현장 제안 안건 논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게 손님이 도착하셨는데요,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인사를 듣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유승희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위해 오셨으니 축사를 받을까요?” (김희자 의장)
  - “네. 좋습니다.” (참석자 전원 박수)
- “유승희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과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기민 준비의 간사)
-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인사 및 축사 :
 

“늦게 오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안드릴 수가 없는데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창립총회인데요, 의장으로 수고해주신 김희자 의장님, 홍수만 부의장님 이종안 부의장님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창립총회 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5월에 마지막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날씨는 거의 초여름 날씨입니다. 굉장히 더운데 저녁은 선선해지고 회의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사가 5월에 많아서 동네에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창립총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 협치인데, 협치하면 사실 말이 많이 어렵지 않나요. 풀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적폐 청산 그러니까 적폐가 무슨 뜻이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붉은 적자냐. 그래서 혹시 빨갱이 이야기하는 게 적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 더 대중적인 이미지로 가려면 협치라고 하는 말보다 다른 말 더 없을까 고민했는데, ‘더불어’ 그러면 또 너무 저희 당을 말하는 것 같아서.. 더부살이도 아니고. 어쨌든시간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통해 새로운 모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심부름 시키실 일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할 일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토론회를 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풀지 못한 숙제 다시 기억하게 늘 이야기해주셔서 한 번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해서 법안을 의결하던지 정책으로 하든지 사업으로 하든지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늘

협치해나가는 정치 활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시의원 왔고, 곧 이윤희 시의원도 도착할텐데 지방의원들도 중요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 김문수 서울시의원 축사 :

“안녕하세요. 김문수 시의원입니다. 회의하시는데 이렇게 중간에 오게 되어 송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김희자 의장님 되신 거지요. 홍수만 부의장님 이종안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요새 성북구에서 제일로 중요한 단체가 났다고 그래서, 꼭 가야 한다고 그래서 유승희 의원님과 유립단편영화제 참석했다가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김희자 의장님 홍수만 부의장님을 정릉에서 보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밀도 끝도 없는 싸움판 벌어지고 하는데도 회의 진행 방법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시니까 엄청난 갈등이, 도대체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회의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스러져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갈등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어차피 내것만 다 안된다는 걸 확인하고 양보한 다음에 협치해서 결론을 내고 일을 풀어나가니까 이분 들 저희보다 훨씬 훌륭하시네 생각했습니다. 이 분들이 동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을 잘 해결해주실 것이라 믿고 저희도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쁘신 가운데 시간내어 참석하셔서 좋은 축사말씀 해주신 유승희 국회의원님, 김문수 서울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기민 준비위 간사)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자 의장)

○ “오늘 창립총회를 1시간 30분 정도 예상했는데요, 계획한 시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어서 김희자 의장님께서 폐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김기민 준비위 간사)

○ “저도 오늘 의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잘 헤쳐나가야 할까 싶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1시간 반에 이것을 마쳐야 하는데, 유승희 의원님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아서 거기 속도를 맞추느라 말을 천천히 하느라 조금 힘들었네요. 우리가 협치성북시민협의회 회원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시는 유승희 국회의원님, 김문수 시의원님 오고 계신데 빨리 끝내버리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속도를 반박자 템포를 늦췄고요. 조금

답답하셨지요? 감사드리고요. 협치가 어렵긴 하지만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같이 간다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창립총회를 하기까지 한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정말 지루하고 힘들기도 했고 한편으론 행복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때에는 박정근 건강분과위원장님께서 약간의 실망을 표하려고 하셨지만 그것도 같이 가는 게 협치거든요.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자리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날개를 펴는 위치에 있는데 날개를 활짝 펴고 성북에 어떤 시민들이든지 오실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기대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협업체가 무엇인지, 협치가 무엇인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은현기 팀장님 많이 도와주실거지요?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힘을 같이 갈 것이라 믿고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희자 의장 정말 잘 시켰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4일 폐회 선언하기 전에 귀한 한 분 오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윤희 시의원님.”

○ 이윤희 시의원 축사 :

“반갑습니다. 이윤희 서울시의원입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이런 발대식을 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협치와 관련한 것들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우리도 좀 알아야지. 협치가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했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정말 무겁구나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 창창할 수 있도록 유승희 국회의원님과 함께 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쁘신 가운데 시간내어 참석하셔서 좋은 축사말씀 해주신 유승희 국회의원님, 김문수 서울시의원님, 이윤희 서울시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김기민 준비위 간사)

○ 마지막으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자 의장)

● 폐회선언

운영위원회 김희자 의장이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24일 협치성북시민협의회 대장정의 창립총회를 마치고 하겠습니다.